

김영록 지사,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 격상해 직접 챙긴다

전라남도가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9일부터 김영록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격상한 전라남도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장성 북하면 명치마을과 담양 금성면 원울리마을 등 산불 취약지를 방문해 예방 활동 현장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가 없도록 산중 외딴 가옥과 산림 연결지 마을의 산불 원인 최소화를 위해 영농부산물을 사전 수거하고, 산불 감시 시각지터는 드론 예찰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영농부산물은 마을단위로 장소를 지정해 수거하고 시군에서 직접 파쇄해 산불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또한 최근 전국 대형 산불로 사찰과 문화재가 소실된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을 보유한 전남지역 사찰 106개소에 대해 산불재난 대응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 구례 화엄사, 장성 백양사, 해남 대흥사 등 5개 대형사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기오는 청명·한식과 식목 시기를 맞아 전남도와 시군의 실국장을 현장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산불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직원 1/4를 투입해 현장예찰을 강화하며 산림 인접지 쓰레기·영농부산물·논밭두렁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특별 단속할 것도 지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정광선 담양 부군수, 전남도의회 김희식·정철·박현숙·박종욱·이규현 도의원, 심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9일 장성군 북하면 명치마을 산불취약지역을 방문,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태세 구축을 당부하는 등 산불 대응 상황 청취 및 점검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수거해 시군서 파쇄·산중 외딴지역 드론예찰 확대 전남도 5개 대형사찰 직접 관리·현장지원담당관 운영 등 지시

장성·담양 산불 취약지 방문해 도민 예방수칙 지도관리 당부도

섭 장성군의회 의장,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 지역 주민과 군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현장점검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수십건의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지역 산

불재난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영록 지사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에게 경남·북 대형 산불의 심각성과 원인을 이야기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등 절대 태우지 말 것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말 것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단 한 명이라도 도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산불방지특별대책 본부를 도지사가 직접 챙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며 “대부분 산불이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도민들께서 산불예방 수칙을 잘 지키도록 지도·관리에 철저히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염선호 기자

다문화 거점 플랫폼 ‘서구가족센터’ 새 보급자리

서구, 결혼이주민 15년 숙원사업 소통행정으로 해결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다문화가정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서구가족센터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28일 양동의 새 보급자리(서구 구성로19번길 7-4)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서구가족센터는 결혼이주민들의 한국 생활을 지원하는 거점 플랫폼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 교류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하지만 외진 곳에 있던 서구가족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센터 내 공간이 협소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한국 생활이 낯선 결혼이주민들이 시내버스를 2~3번 환승해서 센터까지 찾아오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에 서구가족센터 이전의 필요성과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행정예반영되지 못했다.

15년 이상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서구가족센터 이전 사업은 2023년 11월 서구청장이 현장 민청 과정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서구가족센터 개소 이후 처음으로 결혼이주민 100여 명과 전체 간담회를 개최,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개선 사항을 수용해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양동에 새 공간을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3월 이전을 완료한 서구가족센터는 양동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며 이용 공간도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커졌다.

서구가족센터는 가족 돌봄, 상담, 교육 등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취업 연계 프로그램, 자녀 교육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8일 서구가족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결혼이주민들은 “그동안 외딴던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주고 새 공간을 마련해준 서구에 감사드립니다”며 “한국을 더욱 사랑하고 착한도시 서구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고 씩씩하게 키워내는 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착한도시 서구’의 지향점이다”며 “앞으로도 포용과 신뢰의 행정으로 서구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 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올해 1월 고액 후원자 그룹인 서구아너스의 지원으로 다문화가정 15세대(52명)를 선정해 ‘엄마나라 외갓집 방문 사업’을 추진했으며, 설 명절을 맞아 다문화가정 100가구에 각각 온누리상품권 20만원과 장보기 쇼핑카드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석우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하동의 주민을 돕기 위한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되는 구호물품은 일주일이 넘게 꺼지지 않고 있는 대형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 대피소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에서 준비한 ▲생수(5,000개) ▲빵(2,000개) ▲라면(315박스) ▲마스크

북구, ‘경남 산청·하동’에 ‘십시일반’ ‘구호물품’ 지원

산청 및 하동 주민 대상 지원… 다른 피해 지역도 지원 예정

(42,000개) ▲담요(300개) 등 총 5천 2백여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이 오늘 오후 3시에 산청과 하동으로 출발했다.

북구가 산청과 하동을 첫 번째 지원 지역으로 결정한 이유는 산불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지역 중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구는 다른 피해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구호물품을 지원하여 국가 재난 상황 극복에 힘을 보탤다는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화마로 인해 하루아

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대피소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계신 이재민들에게 이번 구호물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북구가 가진 자원과 행정력을 총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7일부터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 성금 모금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금액 3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개화기 ‘꿀벌 질병 검사’

양봉농가 153호 대상 4월말까지 질병 14종 정밀검사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원은 꿀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개화기를 맞아 지역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꿀벌 질병 검사는 양봉 현장에 방문해 사육 실태를 조사하고, 기어다니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꿀벌을 채취한 후 유전자 정밀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정 가축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꿀벌 애벌레 부패)을 포함해 총 14종의 꿀벌 질병을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오는 4월 말까지 지역 양봉농가 153호(약 1만7730봉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는 신속히 농가에 통보한다. 질병 예방·치료법, 사육관리 지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원이 지난해 양봉농가 33농가에서 106건의 질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날개불구바이러스(87.7%), 검은 여왕벌바이러스(54.7%), 이스라엘곰팡

마비증(46.2%), 노제마증(27.4%) 등이 검출됐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원은 이번 검사와 함께 봄철 ‘꿀벌응급’ 방제 홍보·지도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꿀벌응급에는 꿀벌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면역력을 저하시켜 봉군(벌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기생충이다. 꿀벌응급이 증가할 경우 날개불구병 등 여러 바이러스 질병이 확산될 위험이 높아진다. 꿀벌응급에는 여름철부터 급격히 증가하지만 봄철부터 방제를 시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응급 방제는 단순한 기생충 관리가 아니라 봉군의 건강을 유지하고 꿀벌 바이러스 질병을 차단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양봉농가는 정기적으로 소독과 방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질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연구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도일 기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받으세요!”

400동 대상, 건축전문가가 현장 방문, 안전 취약요인 점검

미만인 노후 민간 건축물이다. 기존 점검을 받았거나 공동주택 등 관련법에 따라 정기 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점검은 건축 전문가가 현장에서 신청 건축물을 육안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시설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점

여부,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부터 불량까지 총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물 중 일부는 정밀 점검을 권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

자는 구청 건축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안전팀(☎062-608-2782)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안전 점검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062-525-9775

